

지자체 첫 당근마켓 협업 프로젝트 '당근광산' 오픈

(당신 근처의 광산)

지속가능 일자리 플랫폼 본격화
'광산시민수당'·'구독오피스' 등
전국 지자체서 벤치마킹 잇따라

광주 광산구에서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당근마켓과 추진하는 '당신 근처의, 광산 프로젝트(이하 당근광산 프로젝트)'가 지난 7일 일자리 플랫폼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중고거래, 아르바이트, 동네생활 등 다양한 지역 기반 생활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당근마켓'은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만 3300만 명에 이른다.

'당근광산 프로젝트'는 일자리, 공간 등 정보를 시민에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으로, 당근마켓과 지자체가 처음으로 협업한 사례다.

사회적가치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광산시민수당'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 '민간참여형 광산시민수당 지원사업(일자리)',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필요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형 구독오피스(공간)' 등이 두 축이다.

먼저 시작한 민간참여형 광산시민수당 지원사업은 광산구가 사회적가치 활동을 제공할 시설 수요를 취합해 당근마켓 앱(당근알바)에 모집 정보를 올리는 방식으로 시설과 시민을 연결하고, 실제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광산시민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22개 시범시설을 선정하고, 지난 7일부터 일자리 연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모집 첫날 오전에만 21개 시설 모집 정보와 함께 동시에 모집 인원의 7배가 넘는 인원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 광산구는 각 시설 요청에 따라 모집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광산시민수당을 통해 시민의 일자리 참여(1인당 최대 100시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형 구독 오피스도 대상 공간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일자리 혁신의 불을 지핀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새로운 일자리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도 타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설계자이기도 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위기 및 위기를 해소하는 최고의 해법은 일자리 구축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와 ㈜당근마켓이 지난 4월 '당신 근처의, 광산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대표 시책은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로,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련한 모델을 하나의 기업에 적용한 것이라면,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는 광산구라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전담 부서(지속성장일자리과)를 중심으로 그동안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 운영, 토론회 등을 거쳐 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광산구를 찾아 지속가능

일자리특구의 추진 방향, 진행 상황 등을 듣고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일자리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복잡·다양한 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광산의 일자리 혁신이 반드시 성공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온라인 '광산on' 25일까지



광주 광산구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은 올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 규모다. 일반참여형과 고정참여형, 청년참여형, 자치계획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앞서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 164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번 온라인 주민투표는 관련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3건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5일까지 이동통신 기반 시민참여창구인 '광산on(on)'에서 진행되며 광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1명당 3건(일반참여형 2건, 고정참여형 1건)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2022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광주시 평가에서도 5개 자치구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선정돼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선배 '일타강사' 실무비법 전수...광산집현전 뜨거운 호응

선배·동료 공직자 현장 실무 특강
지출·계약·조례 제정 등 6개 과정
쉽고 유익 '인기'...양코르 요청도

광주 광산구에서 공직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선배·동료 공직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현장실무 요령을 전수하는 '특별한 강연'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별강연은 '광산구 집어주는 현장실무요령 전수특강'의 앞 글자를 딴 '광산집현전'이다.

기존 공직자 교육을 현장·소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외부 강사가 아닌 실제 업무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동료 공직자의 강의를 통해 실용적인 업무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광산구는 ▲행사 의전 ▲지출 ▲계약 ▲시설공사 ▲보고서 ▲조례 제정 등 총 6개 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3일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진짜 실무'를 중심으로 현장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공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산구의 한 공무원(9급)은 "행정 용어, 절차 등 어렵기만 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나름의 개념을 정리하게 됐다"며 "실제 업무에 너무 큰 도움이 된 유익한 강의였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광산구 회계과 이병찬(맨 오른쪽) 계약팀장이 지난 10일 '계약 실무'를 주제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계약 실무 강사로 나선 이병찬 팀장(6급)은 "전문 강사가 아닌데도 후배 공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부히 듣고 이해하면서 공감해주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선후배 공직자 사이에 더욱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한 강연'은 신규 임용 공직자 등 7~9급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입소문

을 타면서 신청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동료 선배 공직자들과 소통하며 조언도 얻고, 실용적인 업무 요령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광산집현전의 인기도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나.우.NOW 인문학'

광산구립도서관, 참여자 모집

광주 광산구는 "인문도시기반구축지원사업에 따라 9-10월 4개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나.우.NOW 인문학'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나.우.NOW 인문학'은 '나와 우리의 지금'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광산구립도서관별 특화 주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테마형 인문 강좌'다.

인문·예술 특화 장덕도서관은 내 인생의 사건과 경험을 글로 수필(에세이)로 써보는 '내 삶이 글이 되는 에세이 글쓰기'를, 그림책 특화 이야기꽃도서관은 자아, 가족, 사랑, 행복, 인생, 죽음이라는 6가지 열쇠말로 엄마가 아닌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엄마를 위한 그림책 테라피(치유 요법)'를 운영한다.

학습·진로특화 첨단도서관은 나를 위해 필요한 경제·인문 상식을 학습하는 '책과 심리로 배우는 경제인문학'을, 어린이 특화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책을 통해 아이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찾는 '책으로 만나는 우리 아이, 다만 다를 뿐이다!'를 운영한다.

각 구립도서관 인문강좌 참여 신청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광산 평생학습포털(edu.gwangsan.go.kr)에서 할 수 있다. 접수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교육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62-960-8548)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

'사회적경제 한여름 밤의 온'

19일 수완호수공원 일원

광주 광산구는 "오는 19일 수완호수공원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의 상생의 장인 '2023 사회적경제 한여름 밤의 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사장 윤봉란)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9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는 광산구 관내 33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해 제품을 판매하고 체험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초대 가수 '디에이디' 공연과 물난타 공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도 선보인다. 유아 놀이기구, 보물찾기, 인물 이름 맞추기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보험사기 ZERO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제안하면 거절하고!
-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 금융감독원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